

대학 정원 줄어든다

정부, 2023년부터 감축 유도 ...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한계대학은 퇴출

정부가 이르던 올 연말부터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부실대학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관리 대상인 '한계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재정위험대학'에 대한 분류 기준을 연말에 발표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18개교를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자체구조개혁 이행과제를 부여해 점검하고, 재정 위험대학은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해 자율적 구조개선이나 회생, 폐교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유엔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00년 82만 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 6000명으로 급감하고,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충원 인원 4만586명(미충원율 8.6%)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으며,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99.2%), 충청권(94.8%), 전라·제주권(91.8%), 대구·경북(91%), 부산·울산·경남(91%), 강원(89.5%) 등 지역별 격차가 컸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작년(12곳)의 두 배 이상인 27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자율혁신대학(일반재정지원)도 적정 규모와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내년 5월 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신입생·재학생 유지충원율이 권역별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반면 정원을 더 많이 줄인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과 각 대학 자체 계획을 반영해 산정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다음 주 마련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요소와 산정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계대학 중 재정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운영손실, 임금 체불 등 대학 재정지표를 분석해 우선적으로 회생을 지원하며, 결국 폐교하게 되면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스터샷 맞고도 델타 변이 무더기 확진

접종완료자들 돌파감염

다행히 증상은 경미

광주에서 3차 접종(부스터샷) 후 2주일을 넘긴 접종 완료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델타변이에 돌파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2면> '부스터샷'을 맞으면 델타변이 감염 가능성이 낮아지고, 백신 면역 회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도 있다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사례여서 3차 백신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24명·직원 2명 등 총 26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감염자들은 50대에서 9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고, 모두 델타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감염자 26명 중 1명은 백신 1차 접종자였으며, 9명은 건강상의 이유 등

으로 백신 미접종자였다.

나머지 15명은 백신 2차 접종 이상 완료자인 '돌파감염자'였는데, 이 가운데 7명은 3차 접종 후 2주일이 지난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였다.

3차 접종완료 후 돌파 감염된 7명의 접종 백신을 분석한 결과, 1명은 1·2·3차 모두 화이자 백신을, 나머지 6명은 1·2차 아스트라제네카(AZ), 3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의 델타 변이 집단확진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 방역 관계자는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들이 오미크론이 아닌 델타변이에 집단 감염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일단 면역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요양병원 입원자의 특수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확진자 모두가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요한밤 거룩한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올해도 성탄절은 돌아왔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는 낮고 보잘 것 없는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 우리 모두와 그리고 기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일 게다. 어두울수록 빛은 또렷이 보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참빛으로 다가온다. 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23일 오후 7시 30분 대교구 앞마당에서 김희중 대주교 집전으로 '성탄 구유 축복예식'을 연다. >관련기사 17면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청년 30% "사무직 일자리 희망"

호남통계청 청년통계 보고서

취업은 10명 중 6명 꼴

절반 이상 임금 250만원 이하

광주 청년(19~39세) 10명 중 3명은 사무 관련 직인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10명 중 6명 꼴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시와 호남지방통계청이 협업해 22일 발표한 '광주시 청년통계'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인구는 41만4088명으로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했다.

2010년 전체 인구 중 32.4%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5만6000여 명이, 비중은 3.8%포인트 줄었다.

청년 가구 수는 14만8797가구로 전체 가구 수(59만9217가구)의 24.8%였다.

이 가운데 주택을 가진 가구는 4만6624가구(31.3%)로 10가구 중 3가구 꼴이었다.

취업자는 24만9000명, 고용률은 59.9%이었다. 월 평균 임금은 200만~250만원이 27.6%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50만~200만원 17.2%, 250만~300만원 16.0%, 300만~400만원 15.2%, 1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은 각 11.7%와 2.1%였다.

광주 전 시민의 월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200만~250만원 구간에서는 6.7%포인트, 150만~200만원과 250만~300만원 구간에서는 각 2.6%포인트와 4.0%포인트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임금 구간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다.

자영업 등 사업 등록을 한 청년은 지난해 4만 8549명으로 2019년 대비 1760명(3.8%) 늘었다.

광주 청년들은 지난해 구직포털 '워크넷'을 통해 6만5877건의 구직신청을 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9.4%(5654명) 증가한 수치다.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구직건수 기준 구직 희망 직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29.9%(1만 9665건), '보건·의료 관련직' 8.8%(5823건), '전기·전자 관련직' 7.7%(5099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광주 청년 수는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2018년 21만1179명이었던 청년 가입자는 2019년 20만4657명, 지난해 20만3359명으로 줄고 있다. 청년 인구가 줄면서 가입률은 51.9%~51.1%~51.5%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년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10점 척도에 6.5점), 생활 만족도(6.2점), 행복 만족도(6.3점)는 중간 이상으로 시민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청년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3841명으로 청년 인구 대비 3.3%로, 2018년 1만1743명(2.7%), 2019년 1만2208명(2.9%) 등 늘었다.

이번 통계는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6개 분야 86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했다.

광주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3년 주기로 작성한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이 통계는 광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 분석했으며 호남권 광역시도에서 처음 시도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시민이 모두 함께해요!

- 교통신호지키기
- 음주/과속운전 하지 않기
- 불법주정차 하지 않기
- 무단횡단 하지 않기

광주광역시 GWANGJU CITY